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청장 기념사

2024. 11. 8.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믿음으로 성장한 소방이
예순두 번 째 소방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소방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공무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을
동료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0년이 넘는 대한민국 소방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소방은 늘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절박한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대되었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육상 재난의 총괄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삼킬듯한 화마와 맞서고 매분 매 초로 다가오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과
불굴의 용기를 불태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소방관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의 여정에는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묵묵히 사선으로 향했던
수많은 소방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그들의 정신은
나날이 두터워지는 일상의 안전과 국민 한 분 한 분이 누려야 할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위기와 난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극단의 이상기후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재난이 일상을 호시탐탐 위협하였고,

미증유의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방은 급변하는 재난환경이 초래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장 확실한 안심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최대·최고 수준의 대응 방침을 늘 견지하고,

전문성과 정교함을 바탕으로 한 지휘체계 가동과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를 확충·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 출동 체계와
소방차 긴급 우선 신호 시스템 등 수요자 중심의
119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인명피해를 현격히 줄이기 위해,
재난 사례를 분석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관계 기관, 민간이 협력하여
실효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더 강하고 발전한 소방의 내일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난 대응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대응 역량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민관 협력으로 지하공간에도 진입 가능한
무인 소방 차량 등 특수장비를 적극 개발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를 보다 첨단화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출동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에는
펌블런스를 운영하여 구급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방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품질의 119서비스가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의 재난에도 앞장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한 소방산업 기술과 제품의 수출 판로 확대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K-소방산업 육성과 진흥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이 국민의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면,
저의 소명은 사랑하는 동료 소방관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소통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삶을 버리고, ‘타인’의 삶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는,
변함없는 사명과 불굴의 용기로
119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62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소방청장 허석곤